

포스코DX, ‘AI 네이티브 컴퍼니’ 전환… 3년내 매출 30% ↑

제조현장·사무영역 AI 고도화
내부 기술 검증… 외부시장 공략
무인 공정·플랫폼 등 상용화 속도

포스코DX가 제조 현장의 피지컬 인공 지능(AI)과 사무 영역의 AI 에이전트를 양대 축으로 ‘AI 네이티브 컴퍼니’ 전환에 나선다. 내부에서 검증한 AI 기술을 외부 시장으로 확산해 향후 3년 내 수주와 매출을 약 30% 늘린다는 목표다.

최태환 포스코DX 경영기획실장은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AI를 업무 수행의 주체로 활용하는 AI 네이티브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내부에서 검증한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를 기반으로 외부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포스코DX는 센서와 제어기술, 제조실행시스템(MES), 전사적자원관리(ERP), 공급망관리(SCM) 등 제조·경영 시스템 전반을 구축·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AI 사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제조 분야에서는 숙련인력의 은퇴와 고 위험 작업 문제를 해결할 핵심 기술로 피



포스코DX는 29일 미디어데이를 열고 ‘AI 네이티브 컴퍼니’ 전략을 소개했다. 최태환 포스코DX 경영기획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지컬 AI를 제시했다.

조석주 포스코DX AX융합연구소장은 “범용 AI보다 제조 공정에 특화된 매뉴팩처링 AI가 중요하다”며 “전문가의 암묵지를 학습해 스스로 판단하고 설비를 제어하는 AI 오퍼레이터를 구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DX는 제철소 크레인과 리프트이며, 원료하역기 등 대형 설비의 무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숙련 작업자의 운전 노하우를 학습한 AI 오퍼레이터를 적용해

사람과 AI, 로봇이 협업하는 지능형 제조 환경을 구현한다.

조 소장은 “리클레이머와 후판 크레인, 원료하역기 무인화 기술은 현재 시운전 단계이며 올 하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제철소 아연도금 공정에는 드로스 제거 로봇을, 냉연 공정에는 디밴딩 자동화 기술을 적용했다. 65톤급 철강제품을 이송하는 무인운반차(AGV)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로봇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제조사의 로봇을 통합 관리하는 기술도 확보했다.

포스코퓨처엠 양극재 공장의 물류 자동화와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모터코어 생산라인의 로봇 자동화 등 그룹 주요 사업장에서도 실증을 확대하고 있다. 향후 휴머노이드와 사족보행 로봇, 심투리얼(Sim-to-Real) 기반 시뮬레이션 기술을 접목해 산업용 로봇 사업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사무 영역에서는 자체 개발한 AI 워크

포스 플랫폼 ‘에이전티(Agentee)’를 기반으로 도메인 특화 AI 직원 체계를 구축한다.

에이전티는 AI 에이전트의 생성·배포와 실행, 모델 강화·튜닝, 성능 모니터링 등 전 생애주기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이다. 이를 활용해 기업 업무를 분석·설계하는 AI 전환(AX) 컨설팅을 제공하고 맞춤형 AI 에이전트 구축을 지원한다.

김병석 포스코DX AI워크포스TF팀장은 “필요한 것은 더 정교한 에이전트가 아니라 조직의 일원으로 일하는 AI 직원”이라며 “시장은 AI 에이전트를 공급하는 단계에서 AI 직원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DX는 현재 재무·인사·노무·프로젝트 관리 등에서 113종의 AI 직원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포스코그룹 전체에서는 200여 개 AI 에이전트를 실증 중이다. 사전 결산 리스크 점검 업무에 적용한 결과 약 3시간 걸리던 작업 시간이 1분 안팎으로 단축됐다. 회계결산 업무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면 생산성이 최소 30% 향상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metroseoul.co.kr



metro

현대차, 아반떼 ‘체급 상승’ 시동… 준중형 한계 넘는다

디 올 뉴 아반떼 테크데이

8세대 완전변경 모델 핵심기술 소개
프리미엄 진화… “차급 이상 가치전달”

준중형 세단의 대명사 아반떼가 ‘저렴한 국민 첫 차’라는 오랜 수식어를 내려놓는다. 차체 강판부터 서스펜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까지 상위 차급 기술을 대거 끌어내리며 8세대에서 체급 상승을 정면으로 선언했다.

현대자동차는 29일 서울 서초구 아크강남에서 ‘디 올 뉴 아반떼 테크 데이’를 열고 8세대 완전변경 모델의 핵심 기술과 개발 배경을 공개했다. ‘차급 너머의 경험(Beyond Class)’을 슬로건으로 개발 콘셉트와 디자인 등을 담당 연구원들이 직접 설명했다.

양유찬 현대차 연구개발본부 MSV프로젝트1실 실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존 강점인 디자인과 실용성, 효율성을 강화하고 성능 개선과 첨단 디지털 사양을



디 올 뉴 아반떼 현대차 연구원들이 질문을 받고 있다. /이승혁 수습기자

더해 차급 이상의 프리미엄 가치를 전달하는 글로벌 탑티어 모델로 완성했다”고 말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차체다. 기존 대비 전장 55mm, 전폭·휠베이스 각 30mm 늘었다. 초고장력 강판 비율을 기존 52.6%에서 58.7%로 끌어올렸고, 평균 인장 강도도 718메가파스칼(MPa)로 4.7% 높여 프리미엄 대형 세단급 강성을 확보했다. 이날 트렁크 용량도 479리터(VDA 기준)

로 처음 공개됐다.

안전 사양에서는 자사 최초로 전자식 변속 레버(SBW) P단 긴급제동을 넣었다. P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가속이 제한되고 네 바퀴에 유압 제동이 걸리는 방식이다.

하이브리드는 성능과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렸다. 배터리를 240V·1.32킬로와트시(kWh)에서 270V·1.49킬로와트시(kWh)로 키우고 구동모터 출력을 높여

시스템 합산 출력이 157마력으로 16마력 올랐다.

가솔린 모델도 손봤다. 파워트레인 2.0 가솔린을 기본형으로 올렸다. 최고 출력은 149마력으로 기존보다 26마력 높아졌다. 현대차 측은 “1.6터보보다 2.0가솔린이 연비 측면에서 우세하고, 그에 맞는 주행 성능도 충분히 튜닝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승혁 수습기자 sh9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軍 ‘아미타이저 4.0’ 무인전력 확보 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다목적무인차량 ‘아리온스멧(Arion-SMET)’을 앞세워 군 다목적무인차량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르면 오는 8월 방위사업청과 양산 계약을 체결하고 육군의 미래형 전투체계인 ‘아미타이저 4.0’에 투입될 무인전력 확보를 지원한다.

29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28일 아리온스멧을 군 다목적무인차량 사업 기종으로 선정한 결과를 공식 통보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르면 오는 8월 방사청과 아리온스멧 양산 계약을 체결한 뒤 생산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국내 UGV 플랫폼 대표 기업으로서 K9자주포와 보병전투장갑차 등 기존 무기체계와 결합한 유·무인복합 체계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효성중공업

초고압변압기 6대 수주

효성중공업이 브라질 대형 수력발전소 증설 사업 수주를 계기로 중남미 전력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효성중공업은 28일(현지시간) 수력·발전설비 전문기업 안드리츠 하이드로로부터 500kV 초고압변압기 6대를 수주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변압기는 브라질 파라나주에 있는 ‘포즈 두 아레이아’ 수력발전소의 대규모 증설 프로젝트에 공급될 예정이다.

효성중공업은 초고압변압기 공급과 함께 자사의 스테콤과 안드리츠 하이드로의 동기조상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스테콤’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원관희 기자

SK이노베이션, 베트남 에너지 사업 본격화

추형욱 대표, 현지 기업 협력방안 모색

SK이노베이션이 인공지능(AI)과 첨단 산업의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베트남에서 단계별 에너지 협력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 미국·호주산 액화 천연가스(LNG)를 공급해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차세대 소형 모듈원자로(SMR)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넓힌다.

SK이노베이션은 추형욱 대표이사(사진)가 지난 16~17일 베트남을 방문해 산업무역부와 국영 에너지기업 페트로베트



남(PVN), 발전회사 PVPower 주요 인사들과 에너지·첨단기술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논의는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성장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베트남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대표는 “차세대 SMR 기술의 검증과 상용화 과정이 완료된 이후 PVN과 원전 분야에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wkh@

중기부, 韓-브라질 협력 채널 구축·가동

K-스타트업 남미 진출 지원

한국과 브라질이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K-스타트업 남미 진출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국 간 공식 협력 채널을 구축·가동한다.

중기부는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노용석 제1차관과 티아구 나카시오 페레이라 브라질 중소기업부 차관이 양자 면담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 2월 블라 브라질 대통령의 국빈 방한 시 체결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분야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한국과 브라질 정상외교 성과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남미 진출 동력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면담에서 양국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중소·벤처기업 공식 협력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정책 교류를 활성화해 양국 중소·벤처기업이 현지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승호 기자 bada@